영통개발 캠퍼스문제 해결된다

영통 영덕지구 개발현황과 기대효과

수원캠퍼스 주변의 영통·영덕지구에 대단위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이에 따라 수원캠퍼스의 고질적인 문제로 남아있던 교통 및 캠퍼스 타운 문제가 점차로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통·영덕지구 택지개발사업은 건설되는 전체 아파트중 60%를 전용면적 18평이하 소형 아파트로 건설하여 도시 무주택 서민층에게 공급함으로써 수도권 주택난을 소화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사업이다.

〈편집자 주〉

'어떻게 진행됐나'

수원 영통·용인 영덕지구는 수원시의 도시계획에 의해 개발되는 수원 남쪽의 마지막 구역이다. 이 계획에 의거하여 토개공이 사업계획을 수정 보완하여 추진하였고 이에 따라 지난 89년 수원시 권선구 매탄동(2만1천평), 용인군 기흥읍 영덕리(20만5천평), 화성군 태안읍 영통리, 신리, 망포리(76만8천평)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다. 이어서 92년에 개발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게 되었고 94년 1월에는 실시계획이 승인되었다. 토개공은 이에따라 올 6월 24일부터 예정지구 대지조성공사에 들어갔으며 오는 96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한 예정이다.

토개공은 환경처와의 환경영향평가협의와 교통부와 교통영향평가심의를 완료하였으며 건설부와 인구영향평가 및 기반시설설치계획에 대한 수도권정비 심무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여 사업을 승인받았다.

사업공정은 현재 9%정도 진척되었으며 도시계획에 따라 전기 상하수도 도로 등의 기반시설공사와 대지조성공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토개공은 지난해 말 이 지역의 아파트 용지 31만 7천평을 두산건설, 신원종합개발 등 37 업체에 분양했고 아파트 분양은 빠르면 올해 말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토개공의 한 관계자는 "아파트 입주의 경우 96년 말부터 진행되어 올 99년 정도에 대략 완료될 것이며 버스 노선배정 등의 대중교통수단의 유치도 입주 시작시점부터 진행될 것"이라고 신시가지 개설계획의 대략적인 입주시기와 교통수단 유치계획을 밝혔다.

주변도로망은 현재 설계중이고 올 95년 5월경에 최종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우리학교 교문앞을 통과하는 도로의 경우 4차선으로 확충되며 이 도로는 현재 세부계획이 완결된 상태이다. 완결된 세부계획에 따르면 학교 부지는 도로확충계획부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토개공은 밝히고 있어 현재 우리학교의 교문 및 대학문화 거리건설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역은 신잘인터체인지와 불과 3km 떨어져 있어 고속도로 진입이 용이한 등 교통여건이 좋고 주변에 대학들이 밀집해 교육여건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녹지가 자연적으로 조성되어 있어 수도권 소도시로서의 좋은 입지조건을 갖고 있어 요즈음 많이 각광 받고 있는 전원도시 형태를 지향하고 있다.

영통지구 어떤 규모인가

◇사업면적 및 총공사비 규모 영통 영덕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총 사업 면적이 99만4천평으로 약 1백만평에 이른다. 이중 38만1천평(38.5%)은 주택건설용지이고 4만1천8백평(4.2%)은 상업용지이며 57만1천평(57.5%)이 공공시설용지로 사용될 계획이다. 토개공의 관계자는 "신시가지 조성대지 면적상으로 볼 때 최근 입주가 완료된 분당이 5백40만평이고 일산이 4백60만평인 것과 비교할 때 영통·영덕지구의 규모는 이 신도시들의 1/5수준이며 지방 소도시들에 비해 적지 않은 규모로 지역발생도시보다 문화시설 등 도시의 생활문화적 기능이 훨씬 우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총 사업비는 8천4백9억원(용지비 5천3백65억원, 대지조성 및 건설시설지원비 등 조성비 3천44억원)이 투입된다.

◇상주인구 및 가구수 영통지구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아파트 2만6천4백90호와 단독주택 5백40호 등 모두 2만7천여호에 10만여명의 인구가 이지역에 상주할 예정이다.

건설되는 아파트 2만6천여호는 전용면적 18평이하가 60%를 차지하는 1만6천5백가구, 18평에서 25.7평 이하가 4천7백60가구, 25.7평 이상이 5천2백40가구로 구성되어 서울시 및 수도권의 무주택 소시민을 위한 택지중심의 신도시로 건설될 예정이다.

◇주변 도로망 확충 인구증가 및 유동인구의 서울시 진입에 따른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단지주변에 3개도로를 확장하고 5개도로를 개설한다. 도로망 정비는 이 지역에 입주할 인구가 주로 서울을 업무생활권으로 가질 것으로 예상하여 주민의 서울 연결을 쉽게 하기 위해 신갈에서 풍덕천에 이르는 도로를 확장하고 사업지구와 지방도로를 연결하는 도로를 대폭 신설·확장할 예정이다.

먼저 우리학교에서 하갈리에 이르는 1.8km구간이 현재 8m에서 30m폭으로 확장되고 사업단지에서 42번 국도에 이르는 연장 1.8km구간이 현재 폭 40m에서 50m로, 풍덕에서 신갈에 이르는 6.8km구간이 현재 폭 15m에서 27.5m로 확장한다.

또 하갈리에서 393번 지방도로에 이르는 연장 1.1km구간이 폭20m도로로 신설된다.

한편 폭 50m도로를 단지중앙등 2개노선에 신설할 예정이며 단지중앙 도로와 서천리쪽 도로가 만나는 교차로에 고가차도를 신축하여 단지주변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또 수원인터체인지 근방에 지하 차도를 만들어 인터체인지 진입에 따른 교통난을 해소할 것이 확정되었다. 한편 단지내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아파트와 공원들을 잇는 폭 8~30m에 이르는 보행자 전용도로(연장 4천203m)29개 구간을 설치키로 했다.

◇주민편의 시설 입주자의 편의를 위해 각종 공공관청이 들어서게 된다. 먼저 각 관청의 용도로 배분되어 사용될 용지계획을 살펴보면 공용의 청사 및 지방의회 1개소, 세무서 1개소, 교육청 1개소, 세관 1개소, 조달청 1개소, 소방서 1개소, 경찰서 1개소, 우체국 1개소등 주요 관청들로 쓰일 용지 계획이 완결된 상태이고 주민생활에 필요한 동사무소 5개소, 파출소 5개소, 우체분국 2개소, 동기소 1개소 등의 용지계획이 완결되었다.

이들 공공건물등은 현재 영통지구의 중심부에 중심상업지구와 함께 집중배치되었고 동사무소등 공방 주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공건물은 영신사거리에는 경관녹지 10개소가 조성될 예정이다.

전기 공급설비로는 변전소 1개소가 유치되고 지역난방을 위한 열 공급설비로는 열병합발전소 1개소가 설치된다.

또한 영통영덕지구에는 종합의료시설및 사회복지시설이 대거 유치될 예정이다.

종합의료시설지구 3만1천523m의 면적에 설치될 계획이다. 이 병원은 5백병상규모의 대규모 종합병원이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사회복지시설은 시가지 중심부에 현재 7천200㎡용지계획이 확정되어 있다.

학교주변의 번모상

학교주변에 이와같은 대규모 주택단지가 들어서면서 수용인구 10만에 대한 각종 부대시설이 유치된 것이어서 우리학교가 직면한 교통문제·치안문제·캠퍼스 타운문제등 모든 복합적인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된다.

먼저 우리학교 바로 앞으로 폭 35m도로가 신설되어 신갈에서 학교진입이 훨씬 수월해지며 고가도로및 육교가 설치되고 도로가 정비됨에 따라 보행자및 자가용의 사고위험이 훨씬 줄어들게 된다.

또 대중교통수단도 대거 유치되어 현재 스쿨버스로 편중되어 있는 학생들의 등하교 방법이 훨씬 다양해 질 것이며 이용할 수 있는 교통편이 많아짐에 따라 등교시간이 짧아지고 등교길이 수월해 질 것으로 보인다. 대중교통수단이 유치되므로써 학교에서 보냈 수 있는 시간이 더 확대되고 이에 따라 동·하계 방학중의 학교 공동화현상이 줄어들 것이며 학교 시설을 방학중에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영통 영덕지구는 단지내 도로망이 잘 정비되어 있고 수원시의 권선구 원천구와 인접해 있어 수원시와 연결되는 대중교통수단의 유치가 다양하고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또 신갈과 풍덕천, 분당을 거쳐 서울로 이어질 수 있고 수원인터체인지와 가까울 뿐만 아니라 안치와 서울로 연결되는 노로와의 연결도로가 대거 신설 및 확충될 예정이어서 수원뿐만 아니라 서울과 연결된 대중교통수단의 유치도 원활히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9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신갈 전철 유치에 관한 것은 현재 백지화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기도청 측도 시설계에 따르면 수원외곽을 연결하는 전철망 계획은 임안조차 되지 않은 실정이라고 밝히고 있어 전철유치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치안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으리라 전망된다.

영통지구내에 경찰서 1개소 및 파출소 5개소가 새로 신설되므로 현재 아간에 상존하는 각종 사건사고의 위험이 다소 간은 감소하리라 예상된다.

또 캠퍼스 타운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지구내 상업지대는 근린상업지대와 중심상업지대로 나뉘어진다. 이중 근린상업지대는 3곳에 집중배치되는데 그중 한곳이 우리학교 정문앞에 인접하여 배치되어 있어 학생들의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근린상업단지 뒤쪽으로는 단독주택 540호가 집중 배치되어 있어 자취 및 하숙등 지방생 및 학교주변 상주학생들의 생활여건이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단독주택단지 가까운 곳에 종합 스포츠 센타가 계획되고 있어 레저등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대거 확충된다.

반면 영통지구 개발에 따른 역효과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지적되는 것이 주변에 상업단지가 조성됨으로 인해 학생신분에 부합되지 않는 소비문화를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서울 소재 각 대학들은 대학주변의 퇴폐 향락 문화로 인해 비판여론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우리학교가 앞으로 건전한 방향으로 소비문화를 유도해 내지 못하면 자칫 향락문화의 중심지로 변질될 수도 있다.

건전문화 창출을 위해

영통 영덕 지구 개발은 99년 주민 입주가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종결된다. 대지 조성공사 후에는 각 상업용지의 매각 및 건설공사가 남아있고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공공건물 유치가 남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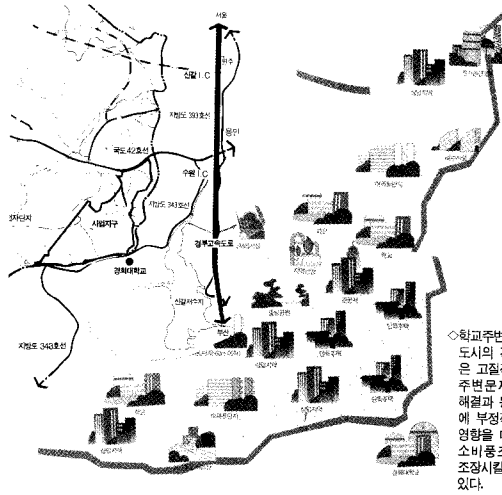
그러나 다른 신도시 건선에서 이미 알고 있듯이 가장 완벽한 도시계획을 수립했더라도 도시가 제기능을 발휘하는 시점에서 여러가지 부수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우리학교가 반야 둔여야 하는 문제중 하나는 대규모 소비문화시설이 근접해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교통, 캠퍼스 타운, 치안, 학생편의등 그간 인구밀집지역에서 소외됨으로 해서 떠안아야 했던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동시에 향락적인 소비문화로 인한 대학문화의 변질을 겪을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우리학교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대학문화가 주변 분화에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 대학만의 문화를 정립시키고 발전시켜야 하는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또 한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점은 지역사회와의 조화모운 발전에 관한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에 있어 대학의 역할은 대학 본연의 문화 뿐만 아니라 각 지역사회와의 다양한 연계와 협력이다. 학교는 나름대로의 프로그램과 협력방안을 고려하고 추진해야 한다.

현재 우리대학은 각종 건설공사와 대학평가라는 큰 명제앞에서 많은 일을 추진해야하는 시점에 와 있다. 여기에 영통·영덕지구의 신시가지 건설이 큰 변수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단순히 개발에 따른 기대효과를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교문건설 및 각종공사를 신속히 마무리 하는 등 캠퍼스 정비를 마쳐야 할 것이고 또 새로운 지역사회건설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적극적인 활동이 기대되는 시점이다.

〈박경화 기자〉


서울
신갈 I.C
지방도 350호선
용인
국도42호선
수원 I.C
지방도 343호선
3차선지
사업지구
경부고속도로
경희대학교
신갈저수지
지방도 340호선
영통역
신갈역
신갈IC
기흥역
구성역
보라역
풍덕천역
죽전역
수지구청역
성복역
상현역
광교역
광교저수지
경기대학교
수원대학교
수원역
수원시청
수원역
수원시청
수원시청
수원역
수원역
수원역